영화감독 심형래의 도전 '디 워'

이무기 용되어 승천하라

제작비 300억원, 최고 수준 CG 한국형 SF 블록버스터

8월 국내·9월 세계 공략… 美 1,700개 스크린 동시 개봉

수년전 '복수혈전'이라는 영화를 찍었지만 흥행에 참패했던 이경규는 올해 설날 제작자로 변신, 두번째 영화 '복면달호'를 내놓았다.

그는 홍보 기간 중 '이경규의 영화'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흥행 성적은 전국 관객 160만명. 대박은 아니었지만 죽을 쓰고 있는 올 한국 영화계를 감안하면 성공적인 '컴백'이라 할 만하다.

또 한명의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인 심형래의 도전이 눈길을 끈다. '우뢰매' '용가리'에 이어 한국형 SF 블록버스터 '디 워'를 들고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심형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제임스 카메론('타이타닉' 감독)이 만들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는 말로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의 꼬리표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었다. 그의 꿈이 담긴 '디워(D-WAR)'의 주인공 이무기는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을까.

▲제작비 300억…스토리 아쉬움

지극히 한국적인 '이무기'를 소재로 한 '디 워'는 제작비 300억원이 투입된 대작으로 오는 9월 미국 1천700개 스크린에서 동시 개봉될 예정이다. '괴물'이 100여개 극장에서 상영된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치다.

SF 영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컴퓨터 그래픽(CG). 줄거리나 배우들의 연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실감 넘치는 CG 효과는 SF 영화의 백미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는 영화의 마지막 화염병 공격을 받은 괴물이 화염에 휩싸여 죽어가는 장면의 CG 수준이 너무 낮아 감동을 반감시켰다.

미국과 한국에서 시사회가 끝난 현재 '디 워'의 컴퓨터 그래픽 수준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견주어도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실제 살아 움직이는 듯 스크린을 누비는 이무기와 각종 괴수들의 자연스러운 몸놀림과 이무기가 LA의 상징건물인 US뱅크 빌딩을 감고 올라가는 대목은 강한 인상을 남긴다.

정상급 스텝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트랜스포머' '아일랜드' '아마겟돈'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스티븐 자브론스키와 '제 5원소' '다이하드'에 참여했던 마크 맨지니가 각각 음악과 음향을 담당,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영화의 흥미를 반감시키는 스토리의 빈약함과 주연배우들의 어설픈 연기는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심형래의 악전고투

1990년대 초부터 9편의 영화를 만들어온 심형래 감독이 '디 워'를 탄생시키는 데는 무려 7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야심차게 시도했던 '용가리'의 실패는 그에게 낙오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었다. 공익광고에 출연했던 '신지식인 1호'는 온데 간데 없어졌다.

배급 시사회에서 그 자신이 "7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나 혼자 여기까지 왔고 결국 해냈다"고 밝힌 것처럼 '디 워'에는 심형래 감독의 피눈물이 담겨 있다.

영화에 등장한 3천 800컷에 달하는 CG는 100% 한국 기술진이 만들어낸 것이다. '용가리'작업 등을 함께 해온 영구아트 직원들과 만들어낸 쾌거다.

영화 마지막에는 험난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감독의 변'이 흐르고 배경음악으로 120인조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아리랑'이 흐른다.

▲'디 워'는 어떤 내용

미국 LA 한복판에서 의문의 참사가 발생한다. 단서는 단 하나, 현장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비늘 뿐이다.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기자 이든은 어린시절 들었던 숨겨진 동양의 전설을 떠올리고, 여의주를 지닌 신비의 여인 세라를 만나면서 이무기의 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다.

전설의 재현을 꿈구는 악한 이무기 '부라퀴' 무리들이 서서히 LA를 뒤덮는 가운데 이든과 세라는 이들과 맞설 거대한 전쟁을 준비한다. 8월 1일 개봉. 12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목! 이 영화

초상화에 얽힌 전설… 공포속으로

'므이'

베트남에서 촬영한 공포물로 영화 제목 '므이'는 베트남 말로 10을 뜻하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여자의 이름이자 초상화에 얽힌 10가지 이야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새로운 소재를 고민하던 소설가 윤희는 애인을 친한 친구에게 뺏기고 베트남에 살고 있는 친구 서연으로부터 '므이' 초상화의 전설에 대해 듣게 된다.

100년 전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한 므이는 남자의 약혼녀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음을 택해 복수를 꿈꾼다.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므이는 그 남자에 의해 그림에 봉인을 당한다.

그렇게 100년을 잠들어 있던 므이는 윤희와 서연을 통해 부활하게 된다.

'여고 괴담' 시리즈에 출연했던 조안과 차예련이 출연하며 공포 영화 '령'으로 데뷔했던 김태경 감독의 두번째 작품이다.

'베트남의 전지현'으로 불리는 인기 여배우 안트가 영화 속 므이로 출연한다. 〈15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혁, '댄스 오브 더 드래곤' 주연

장혁〈사진〉이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3국의 합작 영화인 '댄스 오브 더 드래곤'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장혁은 한국의 24/7 픽쳐스와 싱가포르의 제작사 이스턴라이트가 공동제작하고 미국 아크라이트필름이 배급을 맡은 글로벌 프로젝트 영화 '댄스 오브 더 드래곤'에서 한국인 볼룸 댄서 권태산 역을 맡았다.

장혁은 권태산 역을 맡아 춤과 무술 솜씨를 선보이며, 회상 장면을 제외한 90% 이상의 대사를 영어로 소화해낼 예정이다.

장혁과 함께 로맨스를 펼치게 될 파트너 에미 역은 '상하이 나이츠'에 출연한 싱가포르 톱스타 범문방이 맡았다. 감독은 호주 출신의 맥스 매닉스. /연합뉴스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화려한 휴가	
5·18 광주민중항쟁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로 김상경 등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므이	
베트남의 전설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슈퍼주니어가 출연하는 영화.	콜롬버스(하남·상무), 프리머스 광주(상무)
에반 올마이티	
짐 캐리 주연의 '부르스 올마이티'를 패러디한 영화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상무), 하미, 엔터
라따뚜이	
레스토랑에 살고 있는 쥐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다이하드 4.0	
12년만에 제작된 4번째 시리즈로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샴	
샴 쌍둥이의 비극적 운명을 다룬 공포물.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트랜스 포머	
로봇 군단간의 대결을 그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마이클 베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감수성을 자극하는 시간여행.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광주극장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다섯번째 시리즈물로 목숨을 건 마법 대결이 펼쳐진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해부학 교실	
의대 해부학 실습실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로 한지민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하미